

맥시멀리즘 특징을 이용한 메이크업디자인 연구

- 2005 S/S~2011 F/W 국외 컬렉션을 중심으로 -

김 현 진 · 김 혜 경*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박사과정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오늘날 급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는 20세기 후반 계속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대중예술 및 패션영역의 확대와 전통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파괴되고 재구성됨으로써 새로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메이크업디자인은 디자이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패션이미지와 디자인 컨셉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과 함께 패션트렌드를 주도하는 독자적인 디자인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전반에 대두가 되고 있는 복합적 요소로 조합된 맥시멀리즘(Maximalism)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유형화된 특징들을 연대별·시즌별 메이크업디자인의 발표경향 분석과 유형별 메이크업디자인의 분석을 통하여 국외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디자인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연대별·시즌별 맥시멀리즘 메이크업디자인의 전체적인 발표경향을 통하여 장식성은 다소 낮은 출현빈도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추세의 발표결과를 나타냄으로써 향후 국외 컬렉션에서는 꾸준히 발표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맥시멀리즘 특징을 이용한 메이크업디자인의 유형 중 과장성은 기본적인 메이크업요소를 확대하거나 과장하여 기존의 정형화되고 완벽함에서 벗어난 이미지를 과도하게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셋째, 장식성은 메이크업요소의 변형과 인체의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고의로 부정하고 추상적이고 생물적인 조화로 해학적인 장식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실험성은 이목구비 형태를 무시, 왜곡하거나 피기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이미지로 절망, 공포 등 미적기준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그로테스크(grotesque)한 감정과 동시에 예술적 효과와 퍼포먼스적인 효과를 혼합하여 나타내는 메이크업 현상이 두드러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과 미적가치에 따라 폭넓고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메이크업디자인의 무제한적 미의 수용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메이크업디자인의 표현영역 확대에 기여하고 새로운 표현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맥시멀리즘, 메이크업디자인, 과장성, 장식성, 실험성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현대패션에서 메이크업은 디자이너가 나타내고자 하는 패션이미지와 디자인 컨셉을 얼굴에 표현함으로써 패션트렌드를 주도하는 독자적인 디자인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현대인들은 대량물질 문명사회와 지구촌의 세계화 속에서 획일성을 탈피하여 다양화, 개성화, 전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 측면에서도 다양한 예술양식과 문화가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트렌드를 하나의 양식으로 논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그 시대의 문화와 미의식을 표현하는 수단중의 하나인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이미지들이 병존, 결합하는 퓨전현상이 문화적 코드로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일반 대중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극대지향, 최대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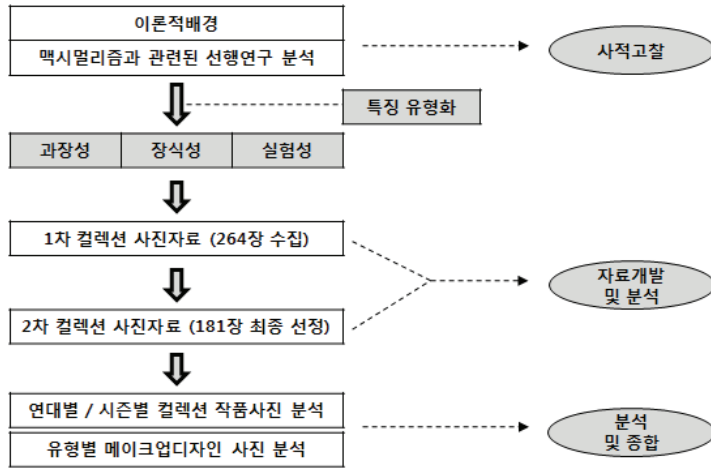
을 표방하는 맥시멀리즘은 하나의 방법을 이용한 표현보다는 과장성, 화려함, 다양성, 장식성, 형태의 왜곡이나 변형, 합성, 탈권위적 표현성 등의 실험적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맥시멀리즘은 외형상 통합된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특성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특징지어주는 복합적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화가 가능하며, 유형화된 기준을 토대로 패션 디자이너 작품에서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디자인 표현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맥시멀리즘과 관련된 연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표 1>, 이를 통하여 맥시멀리즘을 스타일별로 유형화하거나 작품에 표현된 특징과 스타일을 혼합하여 유형화를 시켰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었으나, 하나의 시대적 트렌드인 맥시멀리즘이 나타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특징을 유형화한 메이크업디자인 연구는 미흡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복합적 요소로 조합된 맥시멀리즘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유형화된 특징들이 메이크업디자인상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국외 컬렉

<표 1> 맥시멀리즘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맥시멀리즘과 관련된 연구
김호정(2005) ¹⁾	맥시멀리즘의 조형특성인 복식확대 과장과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명은정(2005) ²⁾	믹스 앤 매치(mix & match) 스타일의 표현경향과 유형을 분석, 현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맥시멀리즘 흐름을 파악, 예측하는 연구
김정연(2006) ³⁾	문학, 예술, 패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맥시멀리즘의 요소를 발견, 시대흐름을 표현으로 맥시멀리즘을 연구
이미연(2007) ⁴⁾	맥시멀리즘은 21세기에 등장한 기존의 패션 테크닉에서 벗어난 외래적인 패션 혹은 새로운 의상으로 이미지를 구분하여 패션트렌드의 한 부분으로 표현된 방법을 연구
박은경(2008) ⁵⁾ 변혜진(2007) ⁶⁾	21세기 패션에서 맥시멀리즘이 부각되고 있는 원인과 미적 특성을 연구
이윤정(2009) ⁷⁾	맥시멀리즘의 특성과 조형미를 규명하여 현대 메이크업 경향을 연구
정승희(2010) ⁸⁾	메이크업디자인에 나타난 이국적 이미지 유형 표현특성을 근거로 이에 맥시멀리즘 이미지를 연구
김현진, 이은숙(2011) ⁹⁾	맥시멀리즘의 특징을 유형화하여 패션디자인의 표현성을 연구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맥시멀리즘을 여러 영역으로 유형화하거나 작품에 표현된 특징과 스타일을 혼합하여 유형화를 시켰다는 점이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하나의 시대적 트렌드인 맥시멀리즘이 나타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특징을 유형화한 메이크업디자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



<그림 1> 연구 구성도

선을 통하여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하며 연구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제 관련 이미지 별로 사진 181장이 최종 선정되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하여 수행된 방법은 맥시멀리즘의 특징과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패션특징을 참고로 3 항목, 즉 과장성, 장식성, 실험성으로 명명하였고, 문헌, 어패럴신문,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분석이 이루어 졌으며, 디자인연구 분석을 위해 수집한 자료는 2005 S/S~2011 F/W의 국외 컬렉션 작품사진들이며, 이를 중심으로 작품분석이 이루어 졌다. 연구범위인 2005년~2011년은 자유롭고 풍요로운 감성을 표현하는 맥시멀리즘이 새로운 개념으로 다가온 시기로 판단되었고 인터넷패션플래닝 (www.ifp.co.kr), 스타일닷컴(www.style.co.kr), 퍼스트뷰 (www.firstview.com), 보그(www.vogue.co.uk)에서 264장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수집한 컬렉션 작품사진 중에서 맥시멀리즘의 표현적 특징을 유형화한 3항목을 보다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2차 작품사진을 패션학전공과 메이크업전공 대학원생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주

II. 이론적 고찰

1. 맥시멀리즘(Maximalism)

1) 맥시멀리즘의 개념

맥시멀리즘은 최대주의, 최대지향주의, 극대주의 등의 의미를 지니며 ‘미니멀(minimal)’의 반대어가 되는 형용사 ‘맥시멀(maximal)’에 명사, 주의, 학설, 이즘(doctrine)을 뜻하는 접미사 ‘ism’이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¹⁰⁾ 미니멀리즘이 1960년대 미니멀 아트에서 유래되어 타 분야로 확장된데 비해 맥시멀리즘은 이 용어를 내세운 예술로부터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고, 80년대 들어 문학과 예술비평에서 일부 언급되었다. 예술학자 로버트 핀커스 위텐(Robert Pincus-Witten)은 1983년 발간된 예술비평 모음 저서에서 1980년대 초반의 여러 미술 경향을 이 단어로 지칭하였으나¹¹⁾ 구체적인 미적 특성을 논하지 않았다. 미국 소설가 존 바스(John Barth)는 1986년 「New York Times Book Review」

에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은총에 이르는 두 가지 반대되는 길을 깨달았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없음의 길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관심사에 몰입하는 긍정적인 길을 통해서였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문학에서 맥시멀리즘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였고¹²⁾ 미니멀리스트 작가와 맥시멀리스트 작가를 대조하여 미학적 특성을 언급하였다. 존 바스가 다른 맥시멀리즘 논의는 이후 다른 비평가의 문학과 예술의 맥시멀리즘 논의에 영향을 끼쳤다.

21세기가 되면서 맥시멀리즘이란 용어는 보다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디자인관련 기사 등에서 언급되었고, 음악, 그래픽과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문학에서의 맥시멀리즘은 ‘빅 북(big book)’이나 ‘토탈 소설(total novel)’ 또는 ‘메가 소설(mega novel)’ 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려지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백과사전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회화에서의 맥시멀리즘은 같은 이미지의 반복적 대량생산과 대중적 이미지를 복사, 사용하는 기법으로써 자극적이며 선명한 효과에 의한 강조 등으로 나타났으며, 건축에서의 맥시멀리즘은 상이한 양식 요소들의 결합을 통하여, 육중함, 풍만함, 다양함, 화려함, 역동적 효과, 과도함의 추구경향으로 나타났다. 패션에서의 맥시멀리즘은 1960년대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라크루아(Christian Lacroix)에 의해 자신의 매우 화려하고 장식적이며 이국적 패션을 가리켜 맥시멀리즘¹³⁾이라고 언급한 이후 단순하고 절제된 미니멀리즘의 개념과는 반하여 사용되어졌으며,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¹⁴⁾ 현상’으로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방면에 걸쳐 널리 쓰이고 있다. 이에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맥시멀리즘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변혜진(2007)¹⁵⁾은 다양한 요소의 혼합을 추구하며 복고적인 성향이 반영된 모든 디테일과 과장된 장식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는 양식적 특성이라 하였고, 박성운(2006)¹⁶⁾은 인간의 감정에 충실하고 과

거와 전통에 관심을 드러내는 현상으로, 고급스러움을 추구하고 화려함의 새로운 의미를 개척하는 것, 김정연(2006)¹⁷⁾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재생 및 이념과 반복되는 유행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1990년대 대표적인 트렌드인 미니멀리즘에 싫증난 패션 디자이너들은 과장된 장식과 유희성이 돋보이는 맥시멀리즘의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큰 것이 아름답다는 심미적 원천에 기초를 두고 화려하고 장식이 많은 비형식적인 스타일, 왜곡성, 변형성, 과장성, 상반된 특징을 가진 요소의 혼합에서 오는 복잡함 등을 매치시키는 방법을 다루었으므로 이상에서처럼 여러 분야에서 언급된 맥시멀리즘은 육중함, 확대함, 과도함 등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유형, 화려함, 독특함, 호화스러움, 부조화 등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유형, 형식적인 스타일의 탈피 경향에 의한 기괴함, 유희성, 의외성 이미지를 포함하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맥시멀리즘의 유형

21세기는 ‘나’를 중심으로 한 독립된 라이프스타일이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이전보다 차별적이고 독특하고 새로운 상품들이 끊임없이 출시됨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발상전환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고, 다양성과 변화를 찬미하는 미학적 경향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큰 것이 아름답다’라는 맥시멀리즘의 궁극적 심미성은 과장, 복잡, 화려, 다양, 섬세, 혼합 등으로 각각 표현되거나 서로 조합되어 표현되고 있다.

김정연(2006)¹⁸⁾은 공간에서 찾을 수 있는 맥시멀리즘의 요소들은 여러 정체성의 통합적 양산으로 나타나는 다문화, 서로 다른 요소의 융합으로 나타나는 믹스 앤 매치, 극단적 쏠림현상과 극대화로 인한 변형, 순환과 반복적 트렌드의 흐름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감수성의 4가지로 재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고, 김호정(2005)¹⁹⁾은 맥시멀리즘

패션은 다문화주의 영향과 다양한 의식의 변화로 생겨난 복식의 형태이며 신체를 무시하거나 왜곡하여 조형적, 유희적 의미를 띠었다고 했다. 또한 맥시멀리즘 스타일은 옛 것을 새롭고 독특하게 표현하고 해석하려는 복고 스타일과 다양한 민족적 특징을 보이는 스타일로 표현되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요소의 혼합과 이미지의 합성을 통해 매우 기상천외하고 부조화스러운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명은정(2005)²⁰⁾은 강렬한 힘으로 분출하는 모든 미적 경향이 그러하듯이 맥시멀리즘 역시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최첨단을 달리던 패션 디자인은 맥시멀리즘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초기 영역 중 하나였다고 하였다. 패션뿐만 아니라 건축 디자인에서도 맥시멀리즘이 나타나는데, 과잉성과 풍부함, 웅장함 전통 및 고급문화를 존중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감성,

신바로크 경향, 민족적 요소 활용 등이 그 예라고 하였다. 메이크업에서 나타난 맥시멀리즘을 살펴보면 이윤정(2009)²¹⁾은 메이크업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특성을 예술과 디자인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르가 결합하는 현상으로 이국적인 요소, 상반되는 것들, 전통적으로 조화되지 않는다고 인식되는 것들이 혼합되어 새롭게 표현되는 양식이며, 이를 장식주의적, 전위주의적, 다원주의적 특성으로 표현되어진다고 하였고, 정승희(2010)²²⁾는 맥시멀리즘 이미지의 메이크업디자인은 추상적이거나 구상적으로 표현하여 기존의 정형화되고 완벽함에서 벗어난 표현방법이 활용되어 지고 있으며, 얼굴 형태의 과장이나 변형, 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고정관념을 깨는 자유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저급문화와 고급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키치적표현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

<표 2> 선행연구에서의 맥시멀리즘 특징별 유형화

선행연구자	맥시멀리즘 특징	유형화	
김정연 (2006)	- 서로 다른 요소들의 융합으로 믹스 앤 매치 표현	·믹스 앤 매치	실험성
	- 극단적 실험현상	·극단적	과장성
	- 극대화 로 인한 변형	·극대화	과장성
김호정 (2005)	- 신체를 무시하거나 왜곡 하여 조형적, 유희적 의미	·왜곡 ·조형적, 유희적	장식성 실험성
	-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요소의 혼합 과 이미지의 합성을 통해 매우 기상천외 하고 부조화스러운 이미지로 표현	·상반된 요소 혼합 ·부조화스러움	장식성 장식성
명은정 (2005)	- 과잉성과 풍부함	·과잉성, 풍부함	과장성
	- 웅장함 전통 및 고급문화를 존중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감성	·웅장함	과장성
	- 민족적 요소 활용	·민족적 요소	장식성
이윤정 (2009)	- 예술과 디자인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르가 결합 하는 현상	·서로 다른 장르 결합	실험성
	- 이국적인 요소, 상반되는 것들, 전통적으로 조화되지 않는다고 인식되는 것들이 혼합 되어 새롭게 표현되는 양식	·이국적인 요소 ·상반되는 요소 조합	장식성 실험성
	- 장식주의적, 전위주의적, 다원주의적 특성으로 표현	·장식주의적 ·전위주의적 ·다원주의적	장식성 실험성 실험성
정승희 (2010)	- 추상적이거나 구상적으로 표현하여 기존의 정형화되고 완벽함에서 벗어난 표현방법 이 활용	·추상적, 구상적 ·정형화, 완벽함 탈피	과장성
	- 형태의 과장이나 변형, 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고정관념을 깨는 자유스러운 이미지를 표현	·과장, 변형, 극대화 ·고정관념 탈피	과장성 실험성
	- 저급문화와 고급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키치적표현 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의 경향	·문화의 경계를 탈피 ·포스트모더니즘 경향	실험성 실험성

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육중함, 확대함, 과도함 등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유형, 화려함, 독특함, 호화스러움, 부조화 등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유형, 형식적인 스타일의 탈피 경향에 의한 기괴함, 유희성, 의외성 이미지를 포함하는 유형들을 과장성, 장식성, 실험성으로 정의하여 이를 토대로 이러한 유형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2. 메이크업디자인(make-up design)

1) 메이크업디자인의 개념

메이크업의 어원은 화장품과 동의어로 그리스어 ‘코스메틱코스(cosmeticcos)’로서 ‘잘 정리한다. 질 김싼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코스메틱코스’란 단어는 ‘코스모스(cosmos)’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의미는 ‘질서 있는 체계, 또는 조화’를 뜻하며²³⁾ 영어의 메이크업(make-up)은 페인팅(painting), 토일렛(toilet), 드레싱(dressing) 또는 프랑스어의 마꾸아쥬(maquillage) 등으로 표현된다. 현재 우리가 보통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화장형태의 호칭은 미국의 할리우드 전성시대로부터 기인하여, 17세기 초 영국의 시인 리처드 크랏슈(Richard Crashou)가 여성의 매력을 높여주는 화장을 뜻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다.²⁴⁾ 이보다 앞선 16세기 셰익스피어의 희곡 속에 ‘페인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이는 당시의 백납분에 색상과 향료를 섞은 것을 얼굴에 화장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16세기의 이탈리아에서 전래된 짙은 화장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16세기에서 17세기를 통하여 연백을 원료로 만든 분을 ‘페인트’라고 불렀고 그 후에 백납분에 색상과 향료를 섞어 만든 다채로운 안료로 얼굴에 색칠하는 것을 페인팅이라 하였으며,²⁵⁾ 메이크업은 신체의 아름다움 부분을 돋보이도록 하고, 약점이나 추한 부분도 수정하거나 위장하는 수단으

로 활용하였다.²⁶⁾ 처음 메이크업의 동기는 인류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인간의 본능적인 장식과 사회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어 왔다. 이는 문명의 상징으로 화장은 선사시대부터 시작되고 본능적인 미적욕구를 위해 행해졌으며, 원시시대에는 사회적 지위와 종교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이처럼 메이크업은 신체를 통한 자아 표현으로 미적 본능표출, 신체보호의 목적 뿐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상징으로 응용되기도 하며,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행위나 남녀 성별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과 지역, 신분, 직업 등의 사회적 의미가 메이크업을 통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메이크업은 패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매개체로서, 인간의 미적 가치관과 태도를 포함한 의지와 의식이 표되어 나타나는 외적 조형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의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방법이라 할 수 있다. 메이크업디자인이란 신체 중 얼굴의 이목구비를 중심으로 색과 행을 더해 장점은 돋보이고, 단점은 보완으로써 외형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말하며, 나아가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 목적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수단으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 현대에는 메이크업 표현에 따라 개성, 기호, 교양을 알 수 있으며,²⁷⁾ 이를 바탕으로 메이크업 동기를 5가지로 구분하여 <표 3>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 메이크업디자인의 목적

메이크업디자인의 목적은 신체의 결점 또는 부족한 부분을 감춘다는 의미보다는 외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해주는 미(美)의 창조 작업이자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조해주는 자기표현의 목적으로 얼굴에 균형을 잡아주면서 볼륨감과 얼굴형태의 조화를 맞추어 나가려는 표현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역할로서의 무언의 의사전달 및 내적 감각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표 3> 메이크업의 동기²⁸⁾

구분	표현방법
장식설 (표시기능설)	원시시대 옷을 입기전의 나체 상태에서 피부에 그림을 그려 넣거나 문신을 새길 때 흙에서 나오는 광물이나 황토 등 자연의 재료를 사용하여 몸에 채색하여 장식했다는 추측의 기원으로 보는 설
미화설 (유인설)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또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위해 본능적인 행위이며 종족의 보존을 위해 시작했다는 설
보호설	인간은 자연환경이나 사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위한 위장이 하나의 미화 수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설
위장설	새의 깃털이나 부리, 짐승의 뿔 또는 식물성 색소 등을 이용하여 얼굴이나 신체에 이용하기도 하고 종교적, 주술적인 목적으로 행하던 것이 화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설
신분 표시설	신분, 계급, 종족, 남녀 성별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하게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에서 나온 설

현대에 이르러 메이크업디자인은 주제에 따라 여러 기법과 재료 등에 구속 받지 않고 인간의 육체에 새로움을 추구하여 인체를 디자인하다는 뜻으로 그 방법이 다양하며 눈, 코, 입의 부위에 메이크업이 되어 지며, 이러한 육체적 메이크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내적 정신과 외적 감각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얼굴이라는 조형물에 구성요소를 더한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서 인간의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으로 나타나며 한 사람의 생각과 느낌으로 표현되고 하며, 최근에 와서는 메이크업디자인은 타고난 외모적 요소에 조화로운 색채를 배색하여 표현하는 예술작품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에 메이크업디자인이 유행에 가장 실험적인 정신을 엿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컬렉션을 통한 다양한 메이크업디자인이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메이크업디자인이 의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무대의 성격, 시즌, 디자이너의 브랜드 및 컨셉을 고려하여²⁹⁾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항상 새로운 것들을 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메이크업디자인은 기술과 사회문화의 발달로 획일화되기 보다는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방법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며 실험적이고 개성 있는 메이크업디자인이 현대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형태, 색상, 질감에 있어 점점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그 평가 기준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 즉, 디자인 원리의 무시 및 소재나 기법의 무제한적 사용을 통해 차별화된 이미지를 양산하며, 의상 및 헤어스타일과의 균형, 조화, 통일을 무시한 극단적 표현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정형화된 미적 표현을 탈피해 빈곤·추 등의 반미적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부조화의 조화 및 미완성의 미를 추구하려는 경향으로 토털패션에 있어 메이크업디자인의 역할 또한 중요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메이크업디자인의 구성요소

메이크업디자인은 표현에 있어 상황이나 연출해야하는 주제와 패션에 따라 여러 기법이나 재료 등에 구속 받지 않고 얼굴에 새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디자인하는 것으로 그 방법이 다양하여 얼굴의 눈, 코, 입, 형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내면의 세계와 외적 감각의 표현으로 전통적인 미의 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예술 분야로 창조되고 있다. 이는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과 불확정성 가치는 예술 전반에 있어 표현의 무제한성³⁰⁾과 함께 메이크업디자인의 다양한 양상으로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의 내면에 있는 정신과 미의식의 감정 표현은 조형으로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메이크업디자인의 구성요소는 우리

의 눈으로 파악된 대상의 본질적인 특성과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메이크업디자인 표현에 있어 특수한 연출의 목적과 결합하는 것으로 디자인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각각의 특성을 형태, 색채, 오브제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형태(form)

우리주변의 모든 것은 자연물에서 인공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조형언어를 삼고 있는 특유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메이크업디자인에서도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의 개념과 구성 원리 및 결과물에 나타나는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들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는 형으로 구성된 윤곽 및 지각되는 대상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로 위치와 방향을 제외한 사물의 공간적 변모를 갖고 있으며, 형태의 범주에서 다루는 것들은 점, 선, 면, 입체가 있고 디자인에서의 형태는 대상물이 추구하는 사용목적과 일치할 때 비로소 독립된 형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용성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메이크업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형태를 이루는 2차원적 세이프(shape)와 3차원적인(form)의 형태가 혼합된 형태를 갖고 있으며, 비대칭과 불균형의 비정상적이며 추상적인 형태, 얼굴의 윤곽이나 형태를 생략하고나 은폐하여 특정 부위만 과장되게 표현하는 형태, 실제 대상을 비현실적으로 변형하거나 동물의 모티프를 묘사하는 형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³¹⁾

(2) 색채(color)

색의 개념은 시지각(視知覺)의 일종으로 일상생활에서 보거나 다루는 색은 물체와 더불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감, 기울기, 표면질감, 대조성, 그 밖의 심리적인 느낌이나 평가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³²⁾

이러한 색은 곧 시각적인 이미지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며, 색채를 인지할 때 광선이 눈을 통해 뇌에 지각하는 과정을 거치는 단계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감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 색이 갖는 이미지이다. 또한 색은 시각을 통하여 하나의 감정을 일으키는 심리적 현상이므로 색에서 받는 인상은 색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른 감정도 다양하게³³⁾ 나타난다. 메이크업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써 색상의 응용과 적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인체에 적용된 모든 색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색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메이크업디자인의 색채 계획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색채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³⁴⁾

(3) 오브제(object)

오브제는 라틴어의 'objectum'에서 기원된 말로 '앞으로 던져진 것'이라는 뜻이며 '객체' 또는 '대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³⁵⁾ 오브제는 예술의 재료, 형식,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외부의 세계를 정복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메이크업디자인에서는 시대와 상관없이 꾸준히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하였으며, 현대적인 기법을 접목시켜 새롭게 변화된 오브제가 사용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메이크업디자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브제는 종이류, 보석류, 패브릭, 깃털, 금속류, 인조 속눈썹, 비닐 등이 있다. 오브제는 개별적인 소재로 이용하거나 그 소재 자체를 변형하여 패턴을 새롭게 창출하거나 소재를 복합하여 색다른 분위기 오브제를 만들기도 하며, 메이크업디자인에서 오브제는 다양한 소재와 기법, 패턴 등을 결합하여 무한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III.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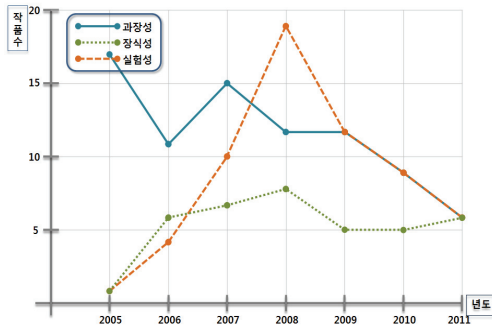
1. 연대별·시즌별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 디자인 특징 분석

1) 연대별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 특징 분석

컬렉션에 나타난 연대별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 발표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연대별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 발표결과

	05	06	07	08	09	10	11	N
과장성	17	11	15	12	12	9	6	82
장식성	1	6	7	8	5	5	6	38
실험성	1	4	10	19	12	9	6	61
N	19	21	32	39	29	23	18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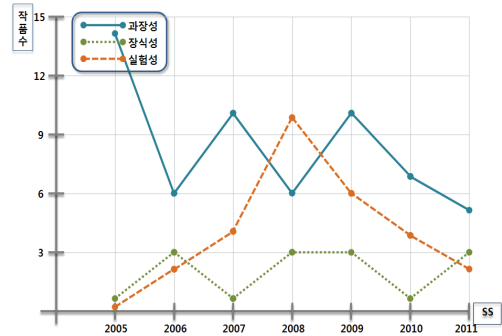
<그림 2> 연대별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 변화경향

<표 4>, <그림 2>에 의하면 과장성 유형은 2005년(N=17), 2006년(N=11), 2007년(N=15)은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으나, 2008년(N=12)은 실험성(N=19)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다가 2009년(N=12), 2010년(N=9), 2011년(N=6)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실험성과 같은 횟수의 발표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으로써 앞으로 국외 컬렉션에서의 맥

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의 과장성 유형은 다소 출현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식성 유형은 전체적으로 낮은 발표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실험성 유형 또한 2008년(N=19)에 다른 유형들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2009년 이후로 하락세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의 결과를 통하여 과장성이 낮은 발표결과를 보여주는 2006년, 2008년은 장식성과 실험성이 상승세를 띠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2009년부터는 과장성, 실험성이 하락세를 보이는 한편 장식성은 낮은 출현빈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의 발표결과를 알 수 있다.

2) 시즌별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 특징 분석

컬렉션에 나타난 시즌별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 발표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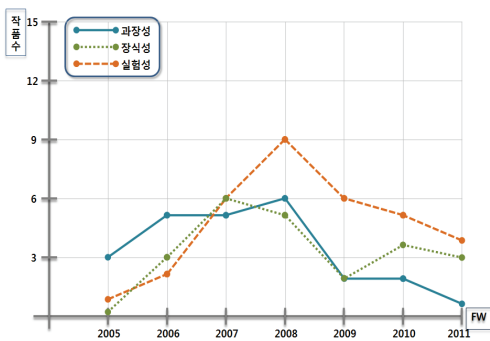


<그림 3> S/S시즌별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 변화경향

S/S시즌별인 <표 5>, <그림 3>에 의하면 과장성 유형은 2005년(N=14)에 높은 발표경향을 보여주다가 2006년(N=6)부터는 일년 주기로 높고 낮음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N=7)이후로는 점차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장식성 유형은 과장성이 낮은 발표를 나타내고 있을 시즌에 다소 높은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추후 국외 컬렉션에서도 계속 이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성

<표 5> 시즌별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 디자인 발표결과

	05		06		07		08		09		10		11		N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과장성	14	3	6	5	10	5	6	6	10	2	7	2	5	1	82
장식성	1	0	3	3	1	6	3	5	3	2	1	4	3	3	38
실험성	0	1	2	2	4	6	10	9	6	6	4	5	2	4	61
N	15	4	11	10	15	17	19	20	19	10	12	11	10	8	181
	19		21		32		39		29		23		18		



<그림 4> F/W시즌별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 변화경향

유형은 2007년(N=4)부터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2008년(N=10)에는 과장성이 낮은 발표경향을 보일 때 반대로 높은 경향을 보여 주었지만, 2009년(N=6)을 기점으로 과장성과 함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음의 결과를 통하여 S/S시즌은 과장성과 장식성이 대조적인 발표경향을 나타냄으로써 과장성의 경향이 많이 발표될 때에는 장식성이 침체되는 경향과 함께 장식성은 다소 낮은 빈도수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해외 컬렉션에 출현할 것으로 보여지며, 실험성 또한 특정 시기에만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반면 과장성과 함께 S/S시즌에는 점차 하락세를 보이는 발표결과를 알 수 있다.

F/W시즌별인 <표 5>, <그림 4>에 의하면 과장성 유형은 2005년(N=3)부터 2008년(N=6)까지 점차 상승세의 발표경향을 보여주다가 2009년(N=2)시즌부터는 하락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장식성 유형은 2007년(N=6)까지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지

만, 과장성과 함께 2009년(N=2)에 하락세를 보여 주다가 2010년(N=4)에 조금 상승되는 경향을 보여 줌으로써 S/S시즌과 다소 같은 출현 경향으로 추후 국외 컬렉션에는 별다른 빈도 차이 없이 계속 이런 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진다. 실험성 유형 또한 과장성과 비슷한 상승세, 하락세 발표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의 결과를 통하여 F/W시즌의 과장성, 장식성, 실험성 유형은 비슷한 상승세, 하락세의 발표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S/S시즌 보다는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이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는 발표결과를 알 수 있다.

2. 유형별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 분석

1) 과장성

본 연구에서의 과장성은 극도로 확대함, 육중함, 과도함의 추구경향이 강한 특징과 함께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표현되는 특성을 말한다.

아 넷 필립 반데볼스트(An et Filip Vandevorst)의 2006 F/W 컬렉션 <그림 5>는 술이 과도한 인조속 눈썹을 언더라인부분에 부착하여 눈의 길이를 과도하게 길어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보였으며,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2007 F/W 컬렉션 <그림 6>은 메이크업의 재질을 이용하여 얼굴의 한 부분만을 강조, 확대하여 전체적인 이미지에 무게감을 더하였고, 이상봉(Lee Sang Bong)의 2007 F/W 컬렉션 <그림 7>은 기존의 눈썹의 위치

<표 6>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의 과장성

과장성				
	<p><그림 5> 아 넷 필립 반데볼스트, 2006 F/W 컬렉션 (출처: Fem collection book)</p>	<p><그림 6> 알렉산더 맥퀸, 2007 F/W 컬렉션 (출처: www.style.co.kr)</p>	<p><그림 7> 이상봉, 2007 F/W 컬렉션 (출처: collection book)</p>	<p><그림 8> 크리스찬 디올, 2007 F/W 컬렉션 (출처: www.style.co.kr)</p>
				
	<p><그림 9> 알렉산더 맥퀸, 2007 F/W 컬렉션 (출처: www.style.co.kr)</p>	<p><그림 10> 알렉산더 맥퀸, 2009 F/W 컬렉션 (출처: www.style.co.kr)</p>	<p><그림 11> 미우 미우, 2010 F/W 컬렉션 (출처: www.style.co.kr)</p>	<p><그림 12> 비비안 웨스트우드, 2010 F/W 컬렉션 (출처: www.style.co.kr)</p>

에서 이탈하여 얇고 길게 그려준 눈썹 아래로 길고 분명한 선이 돋보이는 아이라인과 길고 두꺼운 인조 속눈썹 또한 원래의 위치에서 이탈하여 부착 시킴으로써 눈을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2007 F/W 컬렉션<그림 8>은 눈썹을 인위적으로 검고 크게 그려 강렬한 인상을 돋보이게 하였으며, 특정시대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른 요소와 무분별하게 혼용하여 극도로 육중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9> 또한 헤어디자인에서 머리카락을 조형물로 변형시키거나 엉뚱한 조형물 설치 또는 형태의 극대화, 장식의 과장, 기존 메이크업의 범위의 무제한적 사용을 통해 전체적인 조화를 무시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그림 10>. 미우 미우(Miu Miu)의 2010 F/W 컬렉션 <그림 11>에서는 눈 화장에 회화적인 요소를 가미

시킴으로써 눈을 더욱 부각시켰고,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2010 F/W 컬렉션 <그림 12>는 눈썹과 눈의 경계선을 무시하여 전체적으로 아이 새도를 칠함과 동시에 입술의 경계선 또한 극도로 과장을 시켜 얼굴의 모든 면적이 크게 확대하여 보여 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의 과장성은 얼굴의 이목구비인 눈, 눈썹, 입 등을 순수한 형태로 표현하기보다는 추상적이거나 구상적으로 표현하여 기본적인 메이크업요소를 확대하거나 과장하여 기존의 정형화되고 완벽함에서 벗어난 이미지를 과도하게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2) 장식성

본 연구에서의 장식성은 화려함, 과격성, 독특

함, 호화스러움, 부조화의 추구경향이 강한 특징과 함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특성을 말한다.

폼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2005 S/S 컬렉션 <그림 13>은 눈 화장의 변형과 메이크업 강조점의 이탈을 디테일적 요소와 함께 독특한 장식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빅터 앤 롤프(Viktor & Rolf)의 2005 S/S 컬렉션 <그림 14>는 다소 붉은기가 감도는 피부메이크업으로 피부톤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나 장난스러우면서도 신비스러운 느낌을 꽃들과 함께 표현해주었으며, 석고상처럼 쉼이 두드러진 헤어스타일에 화이트페이스크림과 화이트색도우를 이용해 얼굴에 전체적으로 칠함으로써 인형처럼 매끈하고 글로시한 피부표현이 호색적이고 해학적인 장식적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그림 15>.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2007 S/S 컬렉션 <그림 16>은 인체의 정형화된 아

름다움을 고의로 부정하고 추상적이고 생물적인 형태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초현실주의로부터 취하고 있으며, 미의 기준에서 벗어난 과감한 색채의 사용으로 좀 더 부조화적인 장식성을 선보였다. 그 다음 시즌인 2007 F/W 컬렉션에서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적표현보다는 파격의 범주로 격상시켜 다양한 미적표현을 가능 하게한 불균형, 불완전의 표현방식을 표출하며, 메이크업에서 이목구비의 생략, 변형 및 색의제한, 불필요한 색의 과다적용 등으로 부자연스러운 장식성을 유도하거나 완성된 메이크업을 고의적으로 파괴시킴으로써 불완전한 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그림 17>. 크리스찬 디올의 2008 S/S 컬렉션 <그림 18>은 일본 오페라나 서양의 무도회 오브제형식의 눈 메이크업을 반짝이는 메탈조각의 질감과 함께 일본의 플랫폼과 오라가미기법인 깃털, 글리터, 스펅

<표 7>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의 장식성

장식성				
	<p><그림 13> 폼데 가르송, 2005 S/S 컬렉션 (출처: collection book)</p>	<p><그림 14> 빅터 앤 롤프, 2005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kr)</p>	<p><그림 15> 폼 데 가르송, 2006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kr)</p>	<p><그림 16> 존 갈리아노, 2007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kr)</p>
				
	<p><그림 17> 존 갈리아노, 2007 F/W 컬렉션 (출처: www.firstview.com)</p>	<p><그림 18> 크리스찬 디올, 2008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kr)</p>	<p><그림 19> 존 갈리아노, 2010 F/W 컬렉션 (출처: www.style.co.kr)</p>	<p><그림 20> 자일스, 2011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kr)</p>

<표 8>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의 실험성

실험성				
	<그림 21> 요지 야마모토, 2006 S/S 컬렉션 (출처: Fem collection book)	<그림 22> 빅터 앤 롤프, 2006 F/W 컬렉션 (출처: Fem collection book)	<그림 23> 알렉산더 맥퀸, 2007 F/W 컬렉션 (출처: www.firstview.com)	<그림 24> 알렉산더 맥퀸, 2008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kr)
				
	<그림 25> 비비안 웨스트우드, 2010 F/W 컬렉션 (출처: collection book)	<그림 26> 릭 오웬스, 2010 F/W 컬렉션 (출처: collection book)	<그림 27> 비비안 웨스트우드, 2011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kr)	<그림 28> 비비안 웨스트우드, 2011 F/W 컬렉션 (출처: www.style.co.kr)

글 등이 장식을 대표하는 표현을 연출하며 기존의 이목구비의 위치를 교묘하게 변형시켜 과격스러움과 호화스러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고, 존 갈리아노의 2010 F/W 컬렉션 <그림 19>와 자일스(Giles)의 2011 S/S 컬렉션 <그림 20>은 헤어디자인과 눈화장이 서로 미의 관조를 방해하는 물형식적 부조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중압감적인 장식적요소를 가미하여 맥시멀리즘적 장식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의 장식성은 얼굴형태의 변형, 오브제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함과 동시에 얼굴의 한 부분을 대조의 색상배색으로 과격성을 강조하여 컬렉션의 특성에 맞게 화려함을 표현하고 동시에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거나 독특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

3) 실험성

본 연구에서의 실험성은 상식에서 벗어난 무제한적 표현의 자유, 탈피성, 유희성, 기괴함, 의외성의 추구경향이 강한 특징과 함께 다양한 이미지 실현을 위한 비정상적인 불균형 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특성을 말한다.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2006 S/S 컬렉션 <그림 21>은 흠어 뿌리거나 얼룩진 듯 한 느낌의 다양한 텍스처의 방법으로 망사의 질감을 메이크업으로 연출하여 풍부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빅터 앤 롤프의 2006 F/W 컬렉션 <그림 22>는 브론즈 헤어에 그물 모양 마스크를 매치하여 헤어디자인을 메이크업의 한 요소로 변형시켜 미적조화를 외적으로 표출하는 부분을 무시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재미와 기괴함을 양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목구비 형태를 무시, 왜

<표 9> 유형별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 분석결과

유형	특성	메이크업 디자인 표현방법
과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도로 확대함 ·육중함 ·과도함 ·인위적인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조 속눈썹을 활용하여 눈의 길이를 과도하게 크게 보이거나 길어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로 인해 눈을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경향 -메이크업 재질을 이용하여 얼굴의 한 부분만을 추상적이거나 구상적으로 표현하여 강조, 확대하는 경향 -기존 메이크업의 범위의 무제한적 사용을 통해 전체적인 조화를 무시함으로써 과도하게 보이는 경향
장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려함 ·파격성 ·독특함 ·호화스러움 ·부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이크업의 강조점 이탈을 디테일적 요소와 함께 화려함의 장식성을 추구하는 경향 -기존의 피부색의 변형으로 장난스러우면서도 호색적이고 해학적인 장식적 이미지 경향 -아름다움을 고의로 부정하여 미의 기준에서 벗어난 과감한 부조화적인 경향
실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제한적 표현의 자유 ·탈피성 ·유희성 ·기괴함 ·의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이크업 요소의 풍부한 이미지를 표현가능하게 하는 경향 -미적조화를 외적으로 표출하는 부분을 무시하는 경향 -이목구비 형태를 무시, 왜곡하여 질망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로테스크한 경향 -남성과 여성을 부정하지 않고 융합을 시킨 양성적 이미지 경향 -메이크업의 본질적 요소에 이질적인 소재와의 혼합으로 의외성을 추구하는 경향

곡하거나 피기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이미지로 절망, 공포 등 미적기준에서 어긋나는 극단적인 그로테스크(grotesque)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그림 23>, 원시적 페인팅이나 문신, 콜라주(collage) 기법 등을 메이크업이란 본질적인 요소 외에 이질적인 소재와의 혼합으로 의외적인 표현 방법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24>.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2010 F/W 컬렉션 <그림 25>는 남성과 여성을 부정하지 않고 융합하여 양성적 이미지를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으며, 여성에게 여성인지 알 수 없는 메이크업으로 눈썹을 남성처럼 굵고 짙게 나타내고 콧수염을 그려줌으로써 성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 성구분이 모호하도록 서로의 성이 동시에 표현되는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릭 오웬스(Rick Owens)의 2010 F/W 컬렉션 <그림 26>은 아이라인(eye-line)을 아이홀(eye-hole)과 같은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눈과 눈썹을 동시에 나타내어 극도로 부자연스럽거나 피기스럽고 다소 흉측한 이미지로 보여 지고 있으며,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2011 S/S, 2011 F/W 컬렉션 <그림 27>, <그림 28>은 메이크업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의도보다는 다양한 이미지 실현을 위한 무차별적 절충과 비정상적인 미

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의 실험성은 얼굴의 경계선을 탈피하여 메이크업의 요소의 기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여성의 부드러운 이미지보다 강한 이미지 효과를 표출해주거나 예술적 효과와 퍼포먼스적인 효과를 혼합하여 나타내는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타투나 페인팅, 문신 등을 얼굴에 표현하여 유희적이면서도 몽환적이며 다소 기괴함과 극단적인 혐오, 불쾌감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8>. 그리고 각 유형별 맥시멀리즘적 메이크업디자인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IV. 결 론

현대는 대량물질 문명과 지구촌의 세계화, 21세기에 대한 기대와 불안 속에서 현대인의 다양화, 개성화,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다양성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문화 예술의 혼합과 절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 맥시멀리즘은 시대

적, 문화적 배경을 혼합하여 재창조함과 동시에 다양한 재료를 응용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고자 한다. 또한 이질적인 요소나 정반대의 이미지를 반복, 혼용 또는 병치시킴으로써 과장되고 극적인 이미지를 조화롭게 나타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맥시멀리즘의 특징을 과장성, 장식성, 실험성 인 3가지로 유형화하여 국외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디자인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그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대별·시즌별 맥시멀리즘 메이크업디자인 발표경향을 살펴본 결과, 연대별에서는 과장성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점차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실험성 또한 2008년은 높은 상승경향을 보였다가 점차 하락경향을 보였다. 장식성은 낮은 출현빈도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추세의 발표결과를 알 수 있었다. 시즌별에서는 S/S시즌에는 과장성이 일년 주기로 높고 낮음을 반복하며 꾸준한 발표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F/W시즌에는 실험성이 다른 유형들보다 다소 높은 경향의 빈도수를 보여주었다. S/S시즌의 장식성과 F/W시즌의 장식성 경우 그리 높은 발표추세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메이크업디자인에서 맥시멀리즘 요소가 출현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인 경향을 통하여 연대별·시즌별에서는 과장성, 장식성, 실험성 3가지의 유형들이 점차 낮아지는 발표경향으로 보여지는 바 과장성과 장식성은 대조적인 발표경향을 보였고, 실험성은 다소 낮은 출현빈도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외 컬렉션에서는 꾸준하게 발표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맥시멀리즘 특징을 이용한 메이크업디자인의 유형 중 과장성을 살펴본 결과, 얼굴의 이목구비인 눈, 눈썹, 입 등을 순수한 형태로 표현하기 보다는 추상적이거나 구상적으로 표현하여 눈썹의 굵기, 아이라인의 늘림, 속눈썹의 과장된 부착, 립스틱의 극대화, 과도한 메이크업을 더욱 부각하기

위한 오브제의 사용, 아이새도의 위치 이탈로 인한 눈의 크기의 과장 등 기본적인 메이크업요소를 확대하거나 과장하여 기존의 정형화되고 완벽함에서 벗어난 이미지를 과도하게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맥시멀리즘 특징을 이용한 메이크업디자인의 유형 중 장식성을 살펴본 결과, 얼굴형태의 변형, 오브제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함과 동시에 얼굴의 한 부분을 대조의 색상배색으로 과격성을 강조하였고, 메이크업요소의 변형과 기존의 피부톤의 개념에서 벗어나 장난스러우면서도 신비스러운 이미지와 인체의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고의로 부정하고 추상적이고 생물적인 조화로 해석적인 장식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컬렉션의 특성에 맞게 화려함을 표현하고 동시에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거나 독특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맥시멀리즘 특징을 이용한 메이크업디자인의 유형 중 실험성을 살펴본 결과, 얼굴의 경계선을 탈피하여 미적조화를 외적으로 표출하는 부분을 무시함으로 재미와 기괴함을 양면으로 보여주었으며, 이목구비 형태를 무시, 왜곡하거나 괴기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이미지로 절망, 공포 등 미적기준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그로테스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성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 성구분이 모호하도록 서로의 성이 동시에 표현되는 메이크업과 예술적 효과와 퍼포먼스적인 효과를 혼합하여 나타내는 메이크업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타투(tattoo)나 페인팅(painting) 등을 얼굴에 표현하여 유희적이면서도 몽환적이며 다소 기괴함과 극단적인 혐오, 불쾌감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의 예술사조는 시대에 따라 표현양식이나 방법이 변화되어지고 이전에 유행하였던 예술사조가 향후 재등장할 경우 과거의 표현법의 모방이 아니라 그 시기의 문

화적 배경과 어울려진 표현시도가 필요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자료로서 메이크업디자인의 표현영역 확대에 기여하고 새로운 표현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분석 방법으로 인하여 색상에 관련된 메이크업디자인분석이 제외된 점이며, 차후 연구에서는 3가지 유형들을 패션이미지와 관련지어 맥시멀리즘 특징을 이용한 메이크업 구성요소의 표현방법에 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김호정 (2005). 과장형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1.
- 2) 명은정 (2005). Mix & Match 스타일의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낮설게 하기’의 현대적 표현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107.
- 3) 김정연 (2006). 맥시멀리즘의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22.
- 4) 이미연, 박민어 (2007). 이국적 이미지 상품의 스타일 특성: 2001년~2006년 국내여성복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57(6), pp.46-61.
- 5) 박은경 (2007). 현대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3(3), pp.1-18.
- 6) 변혜진 (2007). 21세기 맥시멀 룩(Maximal Look)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44.
- 7) 이윤정 (2009). 메이크업의 맥시멀리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5(1), pp.274-281.
- 8) 정승희 (2010).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디자인의 이국적 이미지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80.
- 9) 김현진, 이은숙 (2010). 맥시멀리즘 특징을 이용한 패션디자인의 표현성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3(1), pp.7-16.
- 10) 동아 프라임 영어사전(검색어: 맥시멀리즘), 자료검색일 2011. 9. 11. <http://endic.naver.com/endic.nhn>
- 11) Robert P. W. (1983). Entries(Maximalism): art at the term of the decade. New York. Norristown & Milano: out of London Press Inc., p.15.
- 12) Michel D. & Andrew N. (2005). Frank Zappa, Captain Beefheart and the Secret History of Maximalism(1st ed.). Cambridge: Salt Publishing, p.7.
- 13) 이희정 (2008). 2000년 이후 맥시멀리즘적 헤어스타일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 14) 네이버 지식사전(검색어: 글로벌라이제이션), 자료검색일 2011. 6. 5. <http://terms.naver.com/entry>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의 합성어이다. 세계화가 국경 개념이 허물어지는 오늘날의 세계적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라면, 지방화는 지방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말이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라고 한다. 즉 세계화를 추구하되 현재의 기업포토를 존중하는 경영을 해나가는 것을 뜻한다.
- 15) 변혜진. 앞의 논문, p.2.
- 16) 박성운 (2006). 21C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복고적 성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3.
- 17) 김정연. 앞의 논문, p.23.
- 18) 위의 논문, pp.45-46.
- 19) 김호정. 앞의 논문, p.62.
- 20) 명은정. 앞의 논문, pp.45-49.
- 21) 이윤정. 앞의 논문, pp.274-281.
- 22) 정승희. 앞의 논문, pp.70-71.
- 23) 위의 논문, p.35.
- 24) 이주연 (2002). 한국 현대여성의 메이크업 문화에 표현된 감정구조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2.
- 25) 한명숙 (2003). 메이크업 디자이너를 위한 마귀야쥬 예술, 서울: 청구문화사, p.11.
- 26) 이주연 (2002). 한국여성의 메이크업 문화에 표현된 감정구조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2.
- 27) 이명희 (2004). 포스트모던적 현대 메이크업,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 28) 정승희. 앞의 논문, p.36.
- 29) 김희숙, 이연희, 이화진 (2001). 뷰티 & 스페셜메이크업, 서울: 신정출판사. pp.66-68.
- 30) 정승희. 앞의 논문, p.38.
- 31) 위의 논문, p.39.
- 32) 김덕록 (1997). 화장과 화장품, 서울: 답게, p.260.
- 33) 강명주 (2008). 눈화장에 따른 형태 변화와 이미지연구: 20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4.
- 34) 이정은 (2003). 아이메이크업에 의한 이미지 연출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5.
- 35) 정승희. 앞의 논문, p.47.

A Study on Make-up Designs Based on Maximalist Characteristics

- Focusing on Overseas Collections from the 2005 S/S to 2011 F/W Seasons -

Kim, Hyun Jin · Kim, Hye Kyung⁺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Abstract

Rapid changes in modern society are leading to expansions of public art and fashion and de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people's expectations of tradition under the influence of postmodernism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In accordance with this tendency, make-up design plays an important role for designers to express their intended fashion image and design concept and is developing into a design field of its own. This study aims at materia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maximalism associated with complex factors appearing throughout the 21st century, and analyzing how the materialized characteristics express exaggeration, experimentation and decoration in make-up designs of overseas collection through a study of the trend of make-up designs according to year and season and classified by typ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trends according to year and season showed that as years went by, frequency of the decoration increased in spite of a rather low frequency in general. Second, there was a tendency to express exaggeration by expanding and exaggerating the fundamental make-up factors of an existing standard and breaking away from existing ideas of perfection. Third, decoration was expressed in a witty way by transforming make-up factors and denying the beauty of a human body on purpose. Lastly, experimentation was expressed not only as a mixture of art or performance effect but as extremely grotesque emotions different from the aesthetic standard such as despair and horror, and mysterious and unnatural images by distorting the shape of the ears, eyes, mouth or nos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in expanding the field of expression in make-up design and opening new possibilities of expression by analyzing the unlimited aesthetic acceptance expressed by wide and various techniques in accordance with free and subjective personalities and the aesthetic value.

Key words: Maximalism, make-up design, expansion, decoration, experiment